

다니엘의 책 - 제164번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적 의의: 역사적 및 미래적 함의의 규명

Jeff Pippenger

2024-03-28

다니엘 11장 16절에는 주전 63년에 폼페이우스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복한 일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같은 장 41절의 성취로서 미국에 곧 도래할 일요일 법을 표상한다. 그 절과 연관된 역사는 그 성읍이 함락될 때 진행 중인 내전을 드러내며, 이로써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 남북전쟁의 반복을 밝혀 준다. 총성이 발사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두 계층이 미국의 통제권을 두고 투쟁하고 있다.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였을 때, 그것은 예루살렘이 주후 70년에 파괴될 때까지 로마의 권위 아래 머물게 될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의 끝을 표하는, 곧 도래할 일요일 법의 예표였다.

폼페이우스는 그 본문에서 확인되는 네 로마 세력 가운데 첫째이다. 로마인이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역시 확인되지만, 로마 지도자들로 표상된 네 세력 가운데서 안토니우스는 로마에 대하여 반역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 로마를 대적한 로마 지도력을 대표한다. 폼페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그리고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는, 땅의 짐승의 공화정 뿔의 네 세대를 대표하도록 예언적으로 사용된 네 명의 로마인이다.

1863년 세대의 미국 남북전쟁의 반역을 대표하는 폼페이는 또한 마지막 세대와 지금 진행 중인 현 "내전"도 예시한다. 율리우스 카이사는 두 번째 세대를 대표하는데, 그때 미국은 여러 나라 가운데 으뜸 국가로 굳게 확립되었으나, 1913년에 암살되었다. 곧 그때 금융 체계의 주권이 세계주의적 은행 체제에 넘겨졌고, 일세계 정부를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는 처음 두 차례의 세계대전의 영광의 세월을 대표하는데, 유혈사태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미국은 세계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대에서, 술 취함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으로 알려진 티베리우스 카이사는 본질상 존 F. 케네디, 곧 최초의 가톨릭 대통령의 당선으로 시작된 시기를 대표하며, 이로써 로마에 절할 세대를 드러낸다.

폼페이우스와 관련된 이러한 예언적 사안들은 중요하지만, 우리는 현재 폼페이우스와 16절에 앞선 예언적 역사에 집중하고 있다. 그 역사는 그 장의 처음 두 절에서 시작되어 1989년을 끝의 때로 지목하고, 이어 레이건 이후 여섯 번째인 부유한 대통령으로서 글로벌리스트들을 격동시키는 인물을 지목하는데, 트럼프가 틀림없이 그렇게 해냈다.

트럼프는 고레스 이후 네 번째 통치자인 부유한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에스터 이야기에서는 아하수에로로도 알려짐)로 상징된다. 그 구절들에 따르면 3절에서 크세르크세스를 이은 다음 왕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한다.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와 알렉산더 대왕 사이에 여덟 명의 통치자가 있었다. 트럼프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상징하는 세계 단일 정부에 이르기까지 열 명의 왕이 나타나며, 트럼프가 첫째이고 알렉산더가 마지막이다.

예언의 계보는 세상 끝에 이르러 땅의 모든 왕들이 교황권과 더불어 음행할 것을 밝혀 주며, 그 왕들은 "열 왕"으로 표상된다. 열 겹의 왕국의 수장이었고 이세벨과 혼인하였던 아합은, 비록 열 왕 모두가 교황권과 더불어 음행할지라도 그것을 가장 먼저 행하는 하나의 주된 왕이 있음을 나타낸다. 교황권이 처음으로 땅의 보좌를 부여받았을 때 그 주된 왕은 서기 496년에 프랑크족(프랑스)의 왕이었던 클로비스였다. 이것은 교황권이 프랑스에게 가톨릭 교회의 장자라는 칭호와 가톨릭 교회의 맏딸이라는 칭호를 부여한 사실과 일치한다.

프랑스가 문명 세계의 왕좌에 로마를 올려놓은 예언적 사역은 미국의 예언적 사역을 예표한다. 성경 예언의 일요일 법령은 미국에서 시작되며, 그 뒤 지상의 모든 나라가 그 본을 따른다. 예언의 대목마다, 말세에 죄의 사람과 가장 먼저 음행하는 열 왕 가운데 으뜸 되는 왕이 미국임을 지목한다. 비록 2절과 3절에서는 첫 번째 부유한 왕인 크세르크세스와 마지막 왕인 알렉산더 대왕 사이에 어떤 왕도 언급되지 않지만, 역사는 열 왕을 지목한다. 숫자 열은 시험을 의미하며 또한 연합을 의미한다.

세상이 직면한 시험은 짐승의 우상으로 표현되는 전 세계적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 시험은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과 함께 미국에서 시작되어,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그 본을 따를 때 끝난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것의 끝을 그 시작으로 드러내시므로, 2절과 3절에서 부유한 왕과 알렉산더 사이에 왕들이 나열되어 있지 않더라도, 역사는 가장 부유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는 시험의 과정을 드러낸다. 그는 부패한 정치 체제에 참여하여 부를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 활동으로 부유해진 사람이었다.

아메리카라는 이름은 라틴어 형태의 '아메리고'에서 유래하며, 이 '아메리고'는 15세기 말과 16세기 초에 여러 차례 신대륙을 항해한 이탈리아의 탐험가이자 항해사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전반적으로 베스푸치의 탐험은 신대륙 탐사에서 이익, 확장, 명성의 잠재적 기회를 본 후원자와 스폰서들의 재정적 지원과 자본 투자 덕분에 가능했다. '아메리카'라는 이름은 이윤을 창출하려는 노력의 상징이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어떤 것의 끝을 그 시작과 함께 예증하신다. 그리고 메대-바사의 두 뿔 가진 왕국에서 알렉산더 대왕으로 표상되는 단일 세계 정부로 이어지는 다리를 대표하는 열 왕의 시작은 부한 왕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는 프랑스와 아합으로 예표된 왕국의 대통령이며, 또한 온 세상이 매매할 수 있기 위하여 가톨릭 교회 앞에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미국의 권세와 결부된 경제와 마주하게 될 때, 알렉산더 대왕으로 표상되는 그 머리도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7장의 일곱째 왕국은 열 왕이며, 열 왕의 예언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바빌론의 음녀에게 그들의 일곱째 왕국을 넘겨주기로 동의하기 전에 단지 "잠시 동안"만 지속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넘겨진 그 왕국은 "한 시간" 동안만 유지된다. 그들이 그 합의를 받아들이는 예언적 이유는 바빌론의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잠시 동안만 통치했는데, 그의 왕국이 세워진 만큼이나 빠르게 그의 생애가 끝났기 때문이다. 그는 과음으로 죽었고, 이로써 유엔의 열 왕의 짧은 기간과 취함을 상징한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일어서자마자 꺾였고, 그의 왕국은 사방의 바람에게로 넘겨졌으며, 이는 그의 옛 왕국을 재건하려는 그 후의 투쟁을 가리킨다.

또한 나, 곧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의 원년에 나서 그를 굳게 세우고 강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네게 진리를 보여 주리라. 보라, 바사에 아직도 세 왕이 일어날 것이며,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더 부요할 것이다. 그는 그 부요로부터 나온 힘으로 모든 사람을 일으켜 헬라의 나라를 치게 하리라. 또 한 힘센 왕이 일어나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일어설 때에 그의 나라는 꺾여 하늘 사방으로 나뉠 것이요,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그가 다스리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뿔쳐 그 밖의 다른 자들에게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다니엘서 11:1-4.

알렉산더의 왕국은 형성된 만큼이나 빨리 붕괴했는데, 그것은 예언이 급속히 일어난다고 여겨지는 말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악의 세력들이 서로 힘을 합쳐 결속하고 있다. 그들은 마지막 큰 위기를 대비해 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세계에는 머지않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마지막 움직임들은 매우 신속할 것이다." 증언, 제9권, 11쪽.

이슬람의 셋째 화는 첫째 화와 둘째 화의 예언적 특성 위에 확립된다. 첫째 화에는 무함마드의 도래와 함께 시작되어 다음 시기까지 계속되는 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 다음 시기는 "다섯 달", 곧 백오십 년으로 식별되며, 그 기간 동안 이슬람은 로마의 군대들을 "해할" 것이었다. 이 백오십 년의 시간 예언의 끝은 동시에 삼백구십일 년 열닷새의 예언의 시작을 이루는데, 그 기간에는 둘째 화의 이슬람이 이어서 로마의 군대들을 "죽일" 것이었다.

2001년 9월 11일은 첫째 화의 무함마드로 표상된 시기의 도래를 표시하였으며, 그 시기에는 2023년 10월 7일이 또한 고대의 문자적 "영화로운 땅"에서 이슬람이 "로마의 군대들"을 "해할" 시기의 시작을 나타내는 날로 포함되는데, 그 "영화로운 땅"은 미국을 대신하는 표상이며, 2023년 10월 7일 이래로 로마의 군대에 대한 이슬람의 공격은, 2024년 2월 17일 이 글을 집필하는 시점에, 이백 건에 가까워지고 있다.

머지않아 시행될 일요일 법령 때, 미국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서 "죽임을 당한다". 이는 이슬람의 세 번째 대지하드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로마 제국의 옛 군대를 궤멸시킨 391년 15일간의 이슬람 공격과 병행된다. 미가엘이 일어서실 때, 인간의 은혜의 시기는 끝나고, 일곱 마지막 재앙 동안 네 바람이 온전히 풀려난다.

나는 열방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죽은 자들을 심판할 때가 서로 구별되어 차례로 이어지며, 또한 미가엘이 아직 일어서지 않았고 지금까지 없었던 환난의 때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을 보았다. 이제 열방이 분노하고 있으나, 우리의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그분의 일을 마치시면 일어나 보복의 옷을 입으실 것이며, 그때 마지막 일곱 재앙이 쏟아질 것이다.

"나는 네 천사가 성소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마칠 때까지 네 바람을 붙들고 있을 것이며, 그 후에 마지막 일곱 재앙이 임할 것을 보았다." 초기 문집, 36쪽.

"네 바람"은 화잇 자매에 의해 "제 갈 길을 뚫고 나아가며 그 지나가는 길에 죽음과 파괴를 가져오려는 성난 말"로 묘사되며, 은혜의 시간이 마칠 때 완전히 놓이게 된다. 그것들은 둘째 화에서 "네 바람"이 아니라 "네 천사"로 놓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이르되,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 놓아라." 이에 그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 삼분의 일을 죽이기 위하여 그 시와 날과 달과 해를 위하여 예비된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 9장 14, 15절.

"네 바람" 또는 "네 천사"는 그 상징이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이슬람을 가리키는 상징들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섰을 때, 그의 왕국은 일곱째 왕국, 곧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 왕국의 3분의 1을 대표하는데, "그가 일어설 때 그의 왕국은 부서져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뉠 것이다." 인류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 네 바람, 즉 네 천사가 풀려나 그의 왕국을 부술 것이니, 그의 왕국은 "부서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그 열 왕과 그들의 동맹인 세계주의 상인들은 멀리서 서서 통곡하며 울 것이다.

보라, 왕들이 함께 모여 지나갔도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두려워하여 급히 달아났도다. 거기서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임하였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들을 깨뜨리시나이다. 시편 48:4-7.

열 왕들의 경제 구조는 이슬람의 '동풍'에 의해 붕괴된다.

네 사공들이 너를 큰 물로 끌고 들어갔으나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부서뜨렸다. 네 재물과 네 장사, 네 상품과 네 선원들과 네 키잡이들과 네 배의 틈을 메우는 자들과 네 상품을 취급하는 자들, 그리고 네 안에 있는 모든 군사들과 네 한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 멸망의 날에 바다 한가운데로 빠지리라. 에스겔 27:26, 27.

이슬람의 '동풍'은 '그들의 멸망의 날'에 열 왕의 왕국을 깨뜨리는데, 이는 알렉산더 대왕의 왕국이 '깨뜨려져' 하늘의 네 바람으로 나뉠 것으로 표상된다. 다니엘서 11장에서 일어난 역사 가운데 많은 부분은 11장이 최종 성취에 이를 때 반복될 것이다. 그 역사들을 어디에서 올바르게 구분해야 하는지를 판별하는 일은 예언의 학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맡겨진 예언적 사명이다.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은 미가엘이 일어설 때, 곧 인간에게 허락된 은혜 기간이 끝날 때에 결말을 맺는다. 알렉산더 대왕의 왕국이 하늘의 네 바람으로 나뉠 때, 그것은 은혜 기간의 종결을 표상하며, 이어지는 5절부터의 예언적 역사가 새로운 예언의 선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밝힌다.

5절부터 16절까지는 538년부터 임박한 일요일 법까지의 역사를 밝힌다. 5절부터 9절까지는 538년에 시작되어 1798년 끝의 때에 종결된 교황권 통치의 1260년 역사를 나타낸다. 10절은 끝의 때인 1989년에 교황권이 소련을 휩쓸어 버렸을 때, 40절을 예표하는 역사를 지적한다. 11절과 12절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리전을 지적하는데, 푸틴과 러시아가 승리하게 될 것이나, 푸틴의 승리의 여파는 첫째 화의 역사에서 이슬람을 풀어 놓았던 "무저갱을 여는 열쇠"였던 "니스웨의 전투"와 "코스스로에스의 몰락"에 병행할 것이다.

푸틴의 단명한 승리의 여파 속에서, 13절부터 15절에 이르러 미국은 대리전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니, 그것이 곧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수행되어 온 그 대리전의 종결이다. 이 구절은 세 번의 전투를 지목하는데, 첫 번째 전투는 1989년에 10절과 40절의 성취로서 종결되었고, 두 번째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서 11절과 12절을 나타내며, 세 번째 대리전은 미국의 최종 승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13절부터 15절에 제시되어 있다.

5절부터 15절까지에 걸쳐 표상된 이 네 시기와 관련하여 인식되어야 할 것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나타내는 마지막 두 시기와 그에 이어지는 미국의 보복이 인치는 시대에 일어난다는 점이다. 16절은 미국에서 곧 다가올 일요일 법을 밝혀 준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538년의 역사로부터 1798년의 끝의 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다시 1989년의 끝의 때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11절부터 15절에 표상된 마지막 대리전의 두 전투는, 에스겔 12장이 모든 묵시의 효력이 이루어진다고 밝히는 그 시기에 성취된다.

그 환상들은 에스겔에게 "바퀴 속의 바퀴"로 나타났고, 화이트 자매는 그것을 "인간 사건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이라고 규정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역사, 푸틴의 승리, 그리고 이어진 그의 몰락, 그 뒤를 이은 미국의 승리라는 전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줄 위에 줄"로 드러나는 가장 복잡한 계시들 가운데 하나다.

에스겔의 "바퀴 안에 바퀴"에 대해 언급하며, 화이트 여사는 에스겔이 처음 그 바퀴들을 보았을 때 그것이 혼란처럼 보였지만, 결국 에스겔은 '인간 사건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인 그 바퀴들 안에서 완전한 질서를 인식했다고 말한다. 11절부터 15절에 나타난 역사를 올바르게 분별하려면, 가톨릭 교회와 나치 독일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나치 지도자들이 그 관계의 대리자들이기 때문이다.

1918년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이른바 성모 마리아가 발현했다는 사건과, 그 사건에서 세 어린이에게 이른바 성모 마리아가 남겼다고 하는 세 가지 비밀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톨릭 교회와 무신론적 러시아 사이의 투쟁과 제2차 세계대전을 묘사하는 그 세 가지 메시지의 전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나는 파티마 메시지의 일부이다.

프랑스 혁명과 가톨릭교회에 대한 그 예언적 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푸틴을 표상하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타나 있는 "바퀴들" 가운데 하나이다. 프랑스 혁명의 미국에 대한 예언적 관계 역시 이 역사 속에 나타나 있는데, 이는 프랑스가 몰락해 가고 있을 때 푸틴이 나폴레옹으로 표상되는 것과 꼭 같이, 1989년의 전투에서 가톨릭주의의 군대의 수장으로 있었던 전직 배우 로널드 레이건이, 우크라이나가 몰락해 가고 있는 때의 전직 배우 젤렌스키를 예표하기 때문이다. 이 구절들 속에서 서로 교차하고 연결되는 바퀴들 가운데, 젤렌스키를 지지해 왔고 또 지지하고 있는 미국의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있어 마지막 지푸라기는, 푸틴이 승리할 때 그에 의해 폭로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북쪽에서 오는 듯한 회오리바람을 보았는데, '큰 구름과 스스로를 감싸는 불, 그 주위에는 광채가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호박빛 같은 것이 있었다.' 서로 교차하며 맞물린 여러 바퀴들이 네 생물에 의해 움직였다. 이 모든 것 위 아주 높이에는 '사파이어 보석과 같은 모습의 보좌의 형상이 있었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습 같은 형상이 있었다.' 그리고 그룹들 가운데 그들의 날개 아래 사람의 손의 형상이 나타났다.' 에스겔 1:4, 26; 10:8. 바퀴들의 배열은 너무 복잡하여 얼핏 보기에는 혼란스러워 보였으나, 그것들은 완전한 조화 속에서 움직였다. 그룹의 날개 아래 있는 그 손에 의해 지탱되고 인도되는 하늘의 존재들이 이 바퀴들을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 위, 사파이어 보좌에는 영원하신 분이 계셨으며; 보좌 주위에는

신적 자비의 상징인 무지개가 있었다.

그룹들의 날개 아래 있는 손이 바퀴들의 복잡한 움직임을 이끌었듯이, 인간사의 복잡한 전개도 신적 통제 아래 있다. 열국의 다툼과 소란 가운데서도,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이는 여전히 땅의 일을 주관하신다.

차례차례 자기에게 할당된 때와 자리를 차지하였던 여러 나라의 역사는, 그들 자신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무의식중에 한 진리를 증언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오늘날 모든 나라와 모든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계획 속에서 한 자리를 지정하셨다. 오늘날 사람들과 나라들은 실수 없으신 분의 손에 들린 다림줄에 의해 측량되고 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위대하신 '스스로 계신 이'께서 그분의 말씀 속에 정해 두시고, 예언의 사슬에서 고리를 하나하나 이어 영원한 과거에서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펼쳐 보이신 역사는, 시대의 행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무엇이 예상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 준다. 지금까지 성취될 것이라고 예언된 모든 것은 역사의 페이지에 기록되어 왔으며, 앞으로 아직 이루어져야 할 모든 것 또한 제 순서대로 성취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교육, 178.